

책머리



River & Culture

# 과학기술회관 시대를 열며



임 충 수 | 한국하천협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병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년 전 갓 태어나 겨우 틀을 갖춘 우리협회로 보면 겨우 서서 한걸음을 떼기 시작한 해로 미진하나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협회의 나아갈 방향의 기본을 설정하기위한 한국하천협회 로드맵(RARM)을 여러 회원의 뜻을 모아 작성하고, 바로 실행할 것은 즉시 시작하고 장기 계획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7월에는 회원간의 가교(架橋)이며 협회의 홍보매체인 협회지 「하천과 문화」 창간호를 발행하여 회원은 물론 관계기관 과 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게 배포해 드렸으며, 11월말에는 창립 60 돌이 된 일본 하천협회와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 하고 상호간에 정보의 교류와 출판 등 협조를 다짐하였습니다.

11월에는 건교부 지원 하에 전국의 공무원과 회원, 관련인사 등 6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에 모여 「하천사랑 원년 선포 식」, 「전국 우수 하천정비 시상」 과 「아름다운 하천사진 공모전 시상식」 그리고 특별강연, 자연형 하천 전시회와 우수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례로 경기도 광주의 경안천 현장을 참가자 모두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유년을 마감하는 12월말에는 작으나마 자체 사무실을 한국과학기술회관 306호에 확보하고 그동안 지내온 삼성동 동부엔지니어링 사무실로부터 이전하여 새 동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은 물론 장비 및 인력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동부엔지니어링 김국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살이 되는 병술년에는 보다 내공을 다지고 활발한 활동으로 건강한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사람이 다가가는 하천, 즐기고 아끼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천관리 시책을 주도하는 관계 공직자를 포함한 민·관 합동의 연찬회나 대국민의 하천사랑 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업무를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연구와 기술 보급, 선진국가의 현장방문 등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의 하천사례 견학은 장기적인 기본구상 하에 테마별로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아름다운 강 만들기 등 성숙한 하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행사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운동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회원 권익보호와 참여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회활동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참여자만의 활동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탓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가다가는 과연 설립초기의 목표로 갈 수 있을는지 이 시점에서 반성과 아울러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협회의 위상정립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하천법·령에 근거한 법정단체화의 달성입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하천법 개정 작업시 모범에 명시조항으로 포함되었던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제동이 걸려,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이 되었습니다만 관철되도록 남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이나 규칙 등 차선택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살건강이 팔십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가 건강하게 자라서 활발한 단체로 육성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지혜와 땀이 절실한 때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질책,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하천가족 여러분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1  
하천협회장 임 충 수